

農村에 있어서 生産과 消費行爲의 社會的 心理的 要素*

金 晋 均

<目 次>	
I. 序	III. 貯蓄投資志向性과 消費志向性
II. 農村地域共同體에 있어서 協同性의 意味	1. 價值的 水準
1. 同族部落 및 同族集團의 經濟的 協同性	2. 文化的 生存
2. 個性的 結合協同性의 問題	3. 貯蓄投資志向性과 消費志向性
	IV. 結 語

I. 序

이 글은 經濟的 變數와 社會文化的 및 心理的 變數와의 關係를 보고자, 한 農村部落을 調查한 結果로 작성된 것이다. 經濟的 變數는 貯蓄投資 및 生産과 消費行爲로 하여 한 차원으로 잡고, 社會文化的 次元으로는 農村共同體의 構造와 價値를, 그리고 心理的 次元은 兩者에 대한 價値志向性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社會文化的 次元에서는 同族部落과 同族集團 및 현재의 한 部落의 構造와 價値가 生産 및 消費過程에서 協同的 形態를 어떻게 규제하는가를 보았다. 특히 그 協同性이 近代的인 것으로의 機能變容이 可能한 것인가를 밝히려는 잠재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心理的 次元에서는 調查對象者들이 經濟價値, 貯蓄投資 및 消費에 대하여 價値志向性을 어떻게 보이는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調查對象者는 경북 군위군 소보면 서경동 102호 家口에서 50을 無作爲로 標出한 者들이며, 이들에게 調査票에 의한 面接으로 1971년 2월 21~22일간에 調查하였다. 이 50명의 應答者는 20대가 5명, 30대가 17명, 40대 9명, 50대가 12명, 그리고 60대가 7명으로 되어 있고, 無修學者가 18명, 國卒이 26명이며 中高卒이 6명이다. 물론 農業의의 결

* 이 글은 『經濟論集』, IX권 2호에 있는 拙稿 「經濟行爲에 대한 社會學的 接近(序說)」에 제시된 理論的 틀과 概念에 따라 特定化시켜 調查된 資料로 構成되어 있다.

업자는 없으며, 정작면적 1500 평 이하가 17 명, 1500~3000 평이 23 명, 3000~4500 평이 7 명이며, 3 명이 4500 평을 넘는다. 그리고 조사대상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調查資料의 統計的 處理와 檢證을 하지 않고 그들과의 面接過程에서 각 조사항목에 대하여 말하는 意味를 충분히 파악하여 이를 해석과 설명하는데 중요한 근거로 삼으려 하였다. 同族部落과 同族集團에 대해서는 文獻參考로 이루어 졌고 筆者가 農村에서 實地적으로 觀察한 것이 部落의 經濟的 協同性을 논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II. 農村地域共同體에 있어서 協同性의 意味

1. 同族部落 및 同族集團의 經濟的 協同性

韓國의 傳統社會에 있어서 親族原理과 農村의 部落經濟構造가 상호 연관되어 있으리라는 것은 쉽게 전제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傳統的 農村共同體의 部落形態중에서 同族의 地緣共同體(同族部落)가 갖는 數的 比重이나 그 支配的 形態에 대해서는 이미 규명되어 있다.⁽¹⁾ 따라서 同族이 地緣共同體를 形成하여 生活하면서 同族을 규제하는 親族原理가 共同體를 구성하는 각 家族뿐만 아니라 共同體들 전체적으로 규제하는 側面에서 經濟行爲도 규제하였으리라는 것이며, 또한 農業經濟構造下에서 家族과 共同體와의 協同的 特性에 대하여 많은 研究가 있었으므로, 親族原理과 農業的 經濟行爲와의 關係를 同族部落과 同族集團의 側面에서 간단히 관찰해 보는 것은 現在의 農村地域共同體의 經濟構造를 理解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²⁾

여기서 注目코져 하는 바는, 同族部落의 協同性을 親族의 等差的 親疎關係에 따라 理解하여 同族의 一體性이 親族의 等差的 親疎關係에 의하여 經濟적으로는 層化될 뿐만 아니라 經濟行爲의 領域에 따라서도 달리 나타나고, 특히 農業의 生産過程중에서 投資部分과 經營部分에서는 다른 部分과는 달리 協同性이나 共同性的 次元이 相異하다는 것이다. 「同族一門이 相倚 相聚하여 集團村落을 形成하고 共同祖先의 意識下에 經濟的 乃至 自衛的 協同의 精神으로써 同族 和睦의 實을 얻는 것은 同族相互의 集團現活에 多大한 效果를 齊來할 것이다. 이러한 地緣的 同族集團은 大家族制의 延長으로 認定된 것이며 主로 封建的 性格을 가진 宗族의 集團인 것이 勿論이다. 大抵 大家族制의 根本精神은 血緣에 依하여

(1) 金斗憲, 『朝鮮家族制度研究』, 乙酉文化社, 1948. pp.123~144.

崔在錫, 「日帝下의 族譜와 同族集團」, 『亞細亞研究』, 제 XII 권 제 4 호, pp.219~264.

(2) 同族部落은 同族들이 대다수로 한 村落을 구성해서 산다는 血緣的 地緣的 共同體로, 그리고 同族集團은 地緣性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血緣的으로 다소 公式的 組織性을 갖는 것으로 사용한다.

繫連된 家族成員이 崇祖觀念下에 家長의 統率에 依하여 共同의 生活을 營爲하는데 있다. 그러나 一戶內에 同居하는 成員은 스스로 어느 限界가 있어 집을 나눠 달리 居住하게 될 것은 自然의 趨勢이거니와 設使 집을 달리 하여도 隣接의 地에 있어서 生活의 共同이 營爲된다고 하면 기기에 大家族主義의 精神은 擴大되어서 그대로 存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親等的 組織이라 함은 親子關係數 卽 世代數의 算定에 依하여 血緣關係 卽 出自關係에 遠近親疎의 隔差를 지어 血緣의 濃淡 厚薄의 相違를 決定하는 것이다. 卽 血緣의 等差化過程에 있어서 均等한 親族意識을 갖지 않고 그 一體意識이 親等の 遠者보다도 近者에 더 큰 것으로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親近觀念은 愛情의 親疎에 對應되고 親族結合의 大小가 또한 이에 따라서 構成된다. 그러므로 同族集團은 그 親等の 遠近에 따라서 層階的 集團이 形成된다. 다시 말하면 族의 統合이 親族의 遠近關係와 共同祖先의 範圍에 따라서 大小統屬의 成層이 形成된다.」⁽³⁾ 金斗憲教授는 同族部落의 一體性和 血緣의 等差化와의 關係를 계속해서 논급하고 있다. 「卽 그들 同族은 同一祖先의 自覺과 共同祭祀의 義務意識에 依하여 緊密히 結合되어 있다. 그리하여 그 結團의 紐帶는 一時的인 것은 아니고 永續인 것이다. 그들은 祖先의 遺業을 傳承하고, 家運의 더욱 繁昌함을 期함과 同時에 또 祖靈의 住家인 墓地를 굳게 지킨다. 先祖遺業의 發展과 祖靈享祀의 繼續은 祖先에의 報恩인 同時에 스스로 吉福을 찾는 일로 意識한다. 따라서 그들은 特殊한 異變이 없는 限, 永續으로 先祖 傳來의 鄉土愛着의 念을 깊이하여 함께 즐기고 함께 슬퍼한다. 이리하여 共同運命에 놓여 있는 그들이 格別히 相互親和하고 相互扶助하는 것은 實로 自然의 經路라 하겠다. 그러나 同族의 親密程度는 期必고 全面的으로 一樣한 것이 아니다. 卽 年代를 經過함에 따라서 여러 分派를 生하고, 相當히 遠親의 關係를 갖게 되는 것은 不得已한 일이다. 元來 血族의 愛情은 于先 父子 兄弟에 비롯하여, 遠心의 으로 親疎의 關係를 生한다. 따라서 그 中의 近親一族은 더 緊密히 結合하고, 그 中祖의 祭祀에 依하여 統一된다.」⁽⁴⁾

따라서 同族이 同一한 地域에 居住하여 部落을 形成한다고 하더라도 同族의 結合範圍와 親密性의 範圍는 血緣의 等差化過程에 따라 層化되는 것이미, 이와 함께 同族部落에 있어서 生産과 消費의 單位는 家父長的 擴大家族을 基本으로 하게 되는 分化過程도 併行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이것은 李朝社會에 있어서 家產의 所有가 原則적으로 理想的으로는 同

(3) 金斗憲, op. cite, pp.123-124.

親族의 範圍와 그 親等組織에 關해서는 pp.164~180을 참조.

(4) Ibid., p.145

同居共財를 취하면서도, 家長이나 父母의 生存時에도 子孫이 分戶別產하는 것이 現實의 이었다는 데서 分明하다. 즉 累世同居하는 家長의 家族에 있어서 同居共財는 가장 理想的의 所有形態였다는 것이며 別籍異財를 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同居의 妻, 子, 孫, 弟, 姪 等の 私產의 所有事實이 있다든지, 次子가 成婚하면 곧 分家別居시켜 田畝를 割給하고 分家別財시켜서 父母의 存命중이라도 新夫婦는 自織自耕하여 獨立的인 生計를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⁵⁾ 물론 分家가 父母의 인성에 있어서 同族部落의 범위내에 있게 되면 別財의 관리에 대하여 父母의 關心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家族의 同居共財와 分戶別產은 擴大家族이 經濟活動의 基本的 單位가 된다는 것이며, “經濟的 協同性도 擴大家族과 同族部落이라는 두가지 次元에서 區分되어 또한 親族의 等差化에 따른 結合力的 等差化에서 經濟的 協同性의 性格이 分明해 질 것이다. 儒敎道德이 家族價値로 전제되는 限에서는, 家族員이 家長의 家父長的 權威에의 예속(孝)과 父子有親에서 보는 바와 같은 溫情的 相互親知的인 感情의 一體性 및 連帶性이 곧 父母에 대한 모함으로 요인되는 祖上崇拜의 강박적 價値로 志向되어 있으므로, 同居共產를 基礎로 하는 家族經營의 營農(生産行爲)으로 그 經濟的 產出을 家族扶養(消費行爲)에 一次的으로 消費하고, 그 消費行爲는 강박적으로 祖上崇拜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하여 더욱더 祖上崇拜의 儀式的 消費行爲에 引導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家族單位로서

(5) Ibid., pp. 419-423.

金斗憲教授는 分戶別產이 곧 大家族制度의 붕괴라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 즉 「勿論 同族集團은 家長의 家族制의 延長인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同財同爨의 主旨에 立하여, 日當의 共同과 財의 共產과로써 家族의 本質을 規定하는 限, 分家別產은 大家族 分裂의 現象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財의 分裂은 반드시 大家族制 一般이 崩壞를 意味하지 않는다. 卽 分家是 오래기 않아 子孫은 別야, 傍系親戚까지도 包含한 大家族을 構成함에 이르는 것이고, 그 家族結合에 支障을 生하지 않는 限, 存續의 可能性을 가지므로써 이다. 더욱 自給自足의 農業家族에 있어서는, 共同의 耕作을 하고 社會的 治安의 不備한 時代에는, 外敵의 防禦에 便利가 좋고, 貴族의 權勢를 比치는 等의 事情에 依하여서 家族의 多口를 必要로 하는 境遇도 있는 것은 無論이다. 그러나, 이미 累世한 바와 같이 家族內의 利害이며 感情의 衝突에 依하여서 財의 分裂은 不得已한 것으로 되었다.」 家族의 「財의 共產」에 대하여 梁會水教授는 「韓國의 慣習에 있어서는 實은 家產은 戶主의 專有에 屬하여 戶主 및 家族의 共有가 아니다. 그리하여 家族은 戶主의 扶養을 받음으로써 特히 財產은 가진 必要가 없는 일이 많아 따라서 家族이 財產은 가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常態이어서 設令 家族의 獲得한 財產이라 하여도 이를 戶主의 所有에 들리는 것을 普通으로 하나 그러나 또 全히 家族의 特有財產을 認定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例하면 家族이 相續贈與 또는 遺贈에 因하여 얻은 財產은 그 家族의 特有財產으로 되고 特히 獨立 生計를 取하는 家族이 職業 其他의 行爲에 因하여 얻은 財產을 所有한은 그 例가 드물지 않다. 그러나 尊卑長幼의 秩序를 尊重하는 風習의 結果 家族의 財產이라 하여도 戶主가 이를 處分하는 것은 거의 自由이어서 (古로 戶主가 直系尊屬인 境遇를 단한다)……實際에 있어서는 戶主의 財產과 거의 區別없는 일이 있다」는 事態를 示하고 있다. (梁會水, 『韓國農村의 村落構造』, 高麗大學校 出版部, 1967, p. 245.)

는 家産의 共同性, 生産過程에 家族勞動의 共同的 投入 그리고 家族員의 扶養이라는데서 經濟的 協同性을 지적할 수 있다.

同族部落과 同族集團에 있어서는 「同族部落의 機能은 同族의 生産協同機構로서의 그것 뿐만 아니라 消費面에 있어서 相互扶助機構로서의 그것에 認定될 수 있으며 그들이 儒敎道德으로 相戒, 相勵하여 一族의 風敎의 維持와 더불어 子弟教育에도 作用하고 있다」⁽⁶⁾고 하여 同族部落과 同族集團의 經濟的 機能은 엇볼 수 있다. 이것을 몇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 同族部落이나 同族集團에 있어서 家産의 維持 내지 増殖에 대한 共同體的 規制가 있었다. 「大抵 崇祖觀念이 敦厚한 그들은 父祖傳來의 土地를 貴重히 하고, 家産의 維持乃至 増殖은 至大의 關心事로 되어 있다. 萬若 그 嚴父 死함에 三年內에 遺産을 蕩盡함과 같은 者는 不孝莫大한 悖德이라고 보이는 것이 一般의 慣習이다. 特別 同族集團에 있어서는 나쁜 境遇에 比하여 더 強한 社會的 威壓에 支配되어 있다. 家産을 維持 保存함을 얻는 者는 이를 稱讚하고, 그렇지 못한 者는 이를 譴責하는 直接干涉의 影響에 依하여 家産尊重의 觀念이 大體로 매우 두텁다. 따라서 一般 村落에 比하여 食富의 差는 顯著하지 않고 一般으로 生活의 安定을 얻고 있었다.」⁽⁷⁾ 둘째로 生産過程에 있어서 勞動交換組織인 두레와 품앗이는 同族部落에 特有한 것은 아니다. 「鄭氏의 同族만으로 組織된 두레도 없었고, 품앗이도 없었다. 또한 이것은 먼 過去에도 없었던 것이다. 모내기를 하기 위한 품앗이는 있었지만, 이것도 同族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同族員이 아닌 非同族員이라도 無妨하다는 것이다. 地理的 條件이나 勞動力의 條件에 의하여 누구와도 勞動의 交換組織인 품앗이를 形成한다는 것이다. 돈있는 同族은 품앗이가 아니라, 품삯을 주고 …대개는 非同族員에서 勞動力을 購買하고 있었던 것이다.」⁽⁸⁾ 셋째로 金斗憲教授는 同族部落의 日常生活에 있어서 相互扶助의 風習을 지적하여 「同宗으로서 天災로 因하여 凶作을 만난다든가, 病弱에 依하여 不幸은 當한다든가하여 因窮한 者가 있으면 一同은 반드시 그

(6) 梁會水, *ibid.*, p. 259.

(7) 金斗憲, *op. cit.*, pp. 142-143.

(8) 崔在錫, 「同族集團의 組織과 機能」, 『民族文化研究』, 제2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66, p. 103. 崔在錫教授는 善生永助氏가 農業生産을 위한 同族단의 協同組織을 強調하는 점이 많이 과장되고 있다고 하여 예를 들면, 善生氏는 그의 著書 「朝鮮의 聚落(後編)」에서 忠北 鎭川郡 文白面 九谷里에는 常山林氏의 共同耕作地가 存在해 있으며, 또 林民들간에 의하여 協同組織을 構成하여 耕作하는 場面을 寫眞으로 表示하고 있으나, 이것은 전혀 事實과 다르다는 것이 判明되었던 것이다」고 지적하고 共同으로 耕作하는 耕作地도 없었다고 말한다(p. 102). 李萬甲教授(『韓國農村의 社會構造』, 韓國研究圖書館, 1960, pp. 212-213)와 梁會水教授(*op. cit.*, pp. 384-390)의 調査에 포함된 農村地域에 두레는 전연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있고 특히 調査對象이 되었던 同族部落에서 품앗이의 同族的 組織이 特有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지 않다.

救濟의 途를 講究하고 特히 宗孫의 境遇에는 더구나 援助가 크다」⁽⁹⁾고 하였다. 그러나 金斗憲教授는 親族結合의 親等的 組織性을 이 日常生活의 相互扶助의 側面에서 논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崔在錫教授는 이 점에 대하여 분명하게 事例調査를 通하여 밝히고 있다. 즉 「生産을 위한 協同組織은 없지만, 日常生活의 共同의 面에 있어서 어느 정도 協力하고 있는 것은 結婚과 葬禮에 있어서였다. 同族의 葬禮에 있어서의 扶助는 他族도 行하기 때문에 固有的의 機能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葬禮 行事に 있어서의 協同은 同族 固有的의 機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協同도 同高祖의 子孫인 堂內集團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뿐이고 部落을 範圍으로 하는 同族이나, 그 이상의 同族에는 그다지 잘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宗家에 있어서의 葬禮는 그 協同面이 좀더 넓은 範圍까지 擴大되고 있었다. 結婚에 있어서 가장 協同하는 集團은 分家兄弟의 同族이며, 그 다음이 堂內間 정도의 同族인 것 같았다. 지금 말한 結婚이나 葬禮의 協助이외에도 日常 隨時로 往來하는 사이도 兄弟叔侄間이며, 生日날 招請하는 사이도 兄弟間이며, 還甲時에 꼭 扶助를 하거나 또는 農機具나 農牛를 어느정도 자유로히 借用할 수 있는 사이도 兄弟叔侄間이고 보면, 가장 緊密히 結合하고 있는 同族은 分家한 兄弟의 同族의 同族集團인 것이다. 祭祀 때에 잘 協同하는 堂內間(忌祭集團)도 日常生活의 協同面에 있어서는 兄弟集團에는 비할 바 못된다. 하여튼 生活의 協同面에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強한 結合을 나타내는 同族은 兄弟集團과 堂內集團 정도이고, 그 이상되는 範圍의 同族에 있어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¹⁰⁾고 한다.

셋째로 同族集團에 있어서의 協同性에 關한 것이다. --族同門의 團體組織이 그 血族의 關係와 地域的 基盤을 하고 있는 것이 宗契 또는 門契가 있어서 金斗憲教授는 그 機能이 「同族一團의 祖先을 祭祀하고, 親睦을 圖謀하는 것이 眼目인데 冠婚 葬祭의 經濟的 援助에 關해서도 重大한 役割을 한다」⁽¹¹⁾고 하고, 宗契, 洞契, 鄉約의 經濟的 機能이 「同族一

(9) 金斗憲 op. cit., p.143.

(10) 崔在錫(1966), op. cit., pp.135-136.

(11) 金斗憲 op. cit., p.141-142. 그리고 宗契외에 洞契가 있는데 이 洞契는 순수한 同族部落의 경우는 宗契와 一致한다고 보고, 宗契는 同族의 親睦과 祖先의 祭祀가 그 主要 目的임에 對하여 洞契는 村落의 政治的 統制를 主要 目的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自治의 團體로서의 鄉約이 各地에 있었다고 하고, 鄉約은 政治的 統制를 目的으로 하되 血緣의 共同社會에 關한 것으로 말한다.

金斗憲教授는 同族集團을 宗族의 組織으로 파악하고 宗中 또는 門中이라는 宗族의 血緣體는 본질적으로 地緣關係를 強調하는 것이며, 宗中은 본래 宗法에 準하여 構成되는 가담에 宗의 大小에 따라서 派生되므로 多數의 分派를 生하고 大宗下에는 여러 小宗이 연속되는바 「宗中은 共同祖先의 祭祠에 依하여 맺어진 子孫의 一團이므로 그것은 自然的이라 하겠지만 그 一團의 宗

門의和睦과 祖祭共同의 目的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同族一家가 相聚하여 祖靈을 祭하고, 飲食의 禮로써 宗族의 和睦을 圖謀하고, 冠婚 葬祭의 境遇에 當하여 必要한 費用의 大部分은 이 契의 共同財産에 依하여 支辨되고 私財만에 依한 것이 적다. 또 患難 相恤은 勿論이요 養老, 子弟教化에 關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經濟的 相互扶助의 機能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崔在錫教授의 調査에 의하면 金斗憲教授가 지적한 同族集團의 相互扶助의 機能은 대난히 弱화된 다. 즉 「大宗契에서 종종 宗係과 門長과 公事員의 藏儀條로 얼마만큼 提供하고」 있으나 「生活의 扶助라기 보다는 同族의 일의 手苦에 대한 謝禮 내지는 報酬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妥當할 것」이라고 하여, 「同族員의 結婚이나 특히 葬禮時에는 同族員에 의한 扶助가 많이 있」으나 「大宗契·小宗契·七宗契의 財産에서 支出되는 것이 아니라, 同族員의 個人 호주머니에서 支出된다는 것」이며, 비단 非同族員이라도 結婚과 葬禮時에는 扶助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하며, 「더욱 注意깊게 調査하였지만, 同族員의 疾病·火災·旱災 및 衣食이 窮한 同族의 救濟에 宗中(大宗契·小宗契·七宗契)의 財産에서 金品을 支拂한 일은 없었」다고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극히 稀少하고 補助額도 略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貧困 同族員의 日常生活補助費條로써가 아니라, 이들의 助婚費와 墳墓移轉에 대한 補助費였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¹²⁾ 이렇게 보면, 同族集團의 公式的 機構로서는 同族의 冠婚葬禮에 대한 扶助支出이나 生活의 生活扶助에 대한 支出은 公式的으로는 없는 것이며, 적어도 堂內間이내의 親族간에 非公式的으로 生活의 相互扶助가 친밀히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으며, 冠婚葬禮에 대한 扶助는 同族員의 範圍를 넘어서는 相互間的 扶助라고 볼 수 있다.

同族集團組織은 祖上崇拜를 目的으로 하는 것인 만큼, 이 祖上崇拜를 祖祭의 共同과 祖上의 遺業을 유지 및 확장을 통한 同族의 威勢를 표시하는 活動으로 표시하여 同族의 和睦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하자면 同族의 公式的인 契는 祖上祭祀와 祖上遺業을 보존 내지 표시하는데 資金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즉 墓祭 (또는 墓祭를 위

族의 意識으로써 構成되는 限 그것은 또한 人爲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 그 組織의 人爲性을 강조한다. 이 人爲性은 門中이 「宗會 또는 門會」로 組織되고 宗約所를 두는 데서 明白하다는 것이다(Ibid., pp.105-110). 이러한 宗中이 契로써 나타나는 例를 全南靈岩郡의 南平文氏一族에 都門契, 大宗契, 小宗契, 私契, 義庄契, 永慕契, 慕義契 등이 있고 각 집단의 大小에 따라 基本財産이 설치되어 있고 그 出資方法은 一般의 契와 같다고 하였다(Ibid., p.148). 崔在錫教授는 慶南 咸陽郡 地谷面 介坪里의 河東 鄭氏의 同族集團에서는 大宗契, 小宗契, 七宗契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同族集團을 金斗憲教授와 마찬가지로 일단 「共同的 祖上에 대한 祭祀를 그 中心의 結合契機로 하여 맺어진」祭祀集團이라고 보고 있다(1966. op. cit.,). 그리고 同族組織體의 명칭은 多樣한 것으로 되어 있다. (崔在錫, 「同族集團組織體의 形成에 關한 考察」, 『大東文化研究』, 제5집 (1968), p.54).

(12) 崔在錫(1966), op. cit., pp.104-105.

한 位土), 墓地, 墓閣, 墓碑, 床石의 建築 및 修理, 山直家의 建築 및 修理, 族譜 및 文集의 發刊, 齋室 또는 書院의 建築 및 保存, 神道碑, 孝子碑 亭閣등의 建築 維持 修理등에 많은 費用을 지출하고 있다.⁽¹³⁾

그러나 위와 같은 同族集團의 基本的인 두가지 活動을 위한 基金은 주로 同族員의 共同據出에 依하고 그 基金(또는 宗契財產)은 各人의 所持分으로 許容되지 않으며, 또한 그 基金이나 宗契財產의 增大 또는 維持을 위해서는 「殖産興業, 金融貯蓄」은 目的으로 하는 一般의 契와 마찬가지로 殖利原理를 導入하고 있다.⁽¹⁴⁾

이와같이 同族部落과 同族組織의 協同性을 몇가지 側面과 機能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미록 개괄적으로 논의하였지만, 거기서 나타나는 經濟行爲는 同族的 協同이라는 意味에서 祖上崇拜라는 價値에 志向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價値志向에 따른 家産의 保存과 擴大는 經濟活動單位인 家族에 대하여 規範的으로 共同體의 規制가 있었다고 보여 지지만, 그 保存과 擴大를 위한 지출 및 投資의 經濟行爲는 個別的 家族行爲에 局限되거나 近親(分家兄弟내지 堂內間의 親族)의 非公式의 行爲에 따르고, 同族部落 내지 同族集團의 積極인 組織의 協同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農業生産過程에 있어서 勞動交換組織은 傳統的인 共同的 協同의 形態이지만 이것 또한 同族的 組織으로는 나타나지는 않았다. 한편, 同族部落內 또는 그 범위를 초월한 同族集團에 있어서 病弱, 年老, 貧困의 同族에 대한 救助와 個別的 冠婚喪祭에 대한 扶助를 規範的으로는 강조되었지만 오히려 同族集團의 協同性은 同族一團의 祖祭 및 社會的 威勢表現의 活動의 측면에서 우선하였으므로

(13) 咸陽郡의 河東鄭氏의 경우, 大宗契(1890~1960년), 小宗契(1904~1958년) 및 七宗契(1902~1960년)에서 가장 많이 지출된 항목이 祭祀費用의 지출이며, 그다음에 社會的 地位를 유지하고 높이는 데 사용한 것인데, 심지어 他同族의 文集發刊이나 石物修築에도 同族財產으로 扶助하는 事例가 있다(崔在錫(1966), op. cit., pp.126~130). 그리고 溫陽方氏의 同族組織(溫陽方氏 花樹會도 「先祖의 遺德을 敬慕顯揚하며 宗族의 繁榮 및 親睦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하여 神壇 및 齋室의 建立과 位土의 造成을 重要 事業으로 추진하고 있다(崔在錫(1968), op. cit., pp.57-65). 그리고 李萬甲教授의 調査에 의한 迎日鄭氏와 廣州李氏의 同族集團의 活動도 위와 동일한 內容을 이루고 있다(李萬甲, op. cit., pp.69-85).

(14) 金斗憲教授에 의하면, 「宗契는 ……亦是 同宗 同門의 共同據出에 依한 殖産組織으로 된 것이 많다」고 하고 「宗契는 또 宗中契, 宗孫契, 補宗契, 門契, 門中契, 立土契等等이라고 稱」하며 「그 殖利에 依한 共同事業」은 崔在錫教授가 말하는 두가지의 基本的 活動의 범위를 훨씬 넘는 즉 「土로 冠婚喪祭의 費用을 扶助하고 同門의 生計 貧困한 者를 救助하는 外에 敬老, 孝子節婦의 表彰, 集會, 勸農, 教育獎勵, 風習改善, 衛生施設, 納稅組合等等」을 지적하고 있다(op. cit., p.118). 咸陽郡의 河東鄭氏의 大宗契는 始初에 宗家의 기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특징적이거나 이 基本財產이 同族員이 借用하는 方式으로 利殖하여 증대되거나 祭祠費用을 마련한다고 되었다. 1964년에는 年利子 10兩에 대하여 3兩으로, 1949년에는 同族中에 每戶當 貳千圓式 平均 殖本하고 利息은 每年 正租 大斗 高封一斗式 收捧하기로 되어 있다(崔在錫(1966), op. cit., pp.85-87). 金三守教授는 李朝時代의 契를 論하면서, 「團體性에 의한 自治의 機能과 殖利의 機能이 그 中核의 機能」으로서 나타나 있음을 관찰하고 있다(『韓國社會經濟史, 第二篇 封建社會經濟史의 諸問題』, 高天民族文化研究所, 『韓國文化史大系Ⅱ』, 1965, p.680).

로, 同族共同의 저축이 비록 殖利原理를 導入했어도 生産投資에 志向된 것이 아니라 祖上崇拜의 儀式活動과 祖上崇拜의 政治的 目的(同族의 社會的 威勢의 向上을 達成코져 하는 目的)을 중심으로 하는 消費志向의 特性을 갖는 것 같다. 따라서 同族集團의 協同性은 消費志向性을 本質로 하고 있다.

그러면 同族部落과 同族集團에 있어서 農業經濟行爲와 祖上崇拜의 價値와의 關係를 價値志向의 次元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生産行爲는 家族單位로 행해지는 데, 家産의 保存擴張이라는 價値的 要素는, 生産을 위한 同族共同의 저축과 투자가 미미하거나 없었으므로, 家族 個別的 經營과 저축 및 投資의 動機와 行爲를 유인하였을 것이다. 또한 家産 자체가 先祖傳來의 것으로 意味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土地를 쉽게 變形시켜 資本으로서 融通성있게 이용될 수 없게 하는 한편, 家産의 擴張을 위해서는 個別的 저축과, 同族契의 增大를 위해 이용된 殖利原理를 그대로 동용하는 데서 可能케 하였으므로 家産의 保存擴張의 價値要素는 家族單位의 利己의 利益追求를 合理化시켜 줄 수 있다. 이것은 더욱 나아가 親族의 等親화와 결부되어 同族間의 經濟的 層化(地主와 小作 또는 殖利行爲에 의한 債權者와 債務者간의 經濟的 分化)도 同族親和價値상으로도 相違되지 않는 것으로 된다. 한편 同族集團의 共同的 저축행위는 一時性を 띄우고 宗契의 各人 所持分을 不許함으로써 集團組織을 통한 長期的이며 繼續的인 自己利益追求의 動機를 弱화시켜 주며, 儀式과 威勢의 消費的 行爲側面에서 同族의 協同을 통한 同族員간의 同一視 내지 一體感만을 可能케 하였으므로 同族 各 個人도 儀式과 威勢志向의 消費動機를 강하게 갖게 하여 財貨와 用役의 效用價値보다는 상징적 價値要素(威勢擴張과 表現이라는 政治的 目標나 祭祀儀式의 情緒的 價値)에 더욱 志向케 했을 것이다. 또한 同族集團의 結合은 部落地域範圍라는 地緣性을 넘어서서 血緣性을 基本으로 하여 組織됨으로서 農業地域共同體(同族단의 部落이 아닌 一般的인 村落)에 대하여 共同的 生産協同(저축 투자 경영의 共同的 協同)을 可能케 하는 動機와 條件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2. 個性的 結合協同性의 問題

위에서 논급된 同族部落 또는 同族集團의 經濟的 協同性은 消費志向의이며 또한 個性的 組織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이 傳統的 農業社會의 主要한 價値體系를 이루는 것이라면, 비록 同族으로만 構成되지 않는 一般 部落에 대해서는 價値體系로서의 機能은 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資本主義的 經濟體系나 近代產業體系에서 協同組織가 非個性的 關係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側面에서 취급하여 分析해 볼만 하

다. 여기서 慶北 軍威의 西京里를 中心으로 해서 몇몇 觀察된 部落의 資料를 갖고 보고저 한다.

(1) 非同族部落에 있어서도 家産의 個別家族的 保存所有의 觀念과 形態가 支配的인 것 같다. 經濟的 利益을 追求하기 위하여 資本을 共同으로 共資하여 組織的 營農을 하는 경우가 그 어떠한 種類의 것도 軍威의 西京里에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全國적으로 보아도 극히 드물다. (15) 西京里의 本調查應答者 50명중에서 친척이 아닌 사람과 자본을 같이 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데 態度를 같이 한 사람이 39명이며, 財産과 돈은 자기 수중에 있어야 안심이라는 態度는 25명이 같이 하고 있다. 農村에 있어서 出資를 共

<표 1>

	예	아니오
(1) 친척이 아닌 사람과 자본을 같이 하여 일을 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39	11
(2) 재산이나 돈은 자기 수중에 있어야 안심이다.	25	25

同으로 하여 生産過程에서 利益이 되도록 하는 非個性的 組織體에 대한 經驗은 里洞單位의 農業協同組合이 있었는데, 이것이 規模의 經濟性的 理由로 근래에 單位組合을 合併시키고 있는데, (16) 農協中央會의 자체 調查報告에 의하면, 「單位組合의 規模擴大에 따라 自己資本의 絶對額은 늘어 났으나 自己資金의 造成 및 出資金의 拂入이 規模擴大에 比例하여 增加되지 않아 負債比率이 增加되고, 負債의 增加에 따른 過度한 他人資本의 利子支拂로 因하여 經營成果가 不振하게 되었거나」 또는 「單位組合의 規模擴大가 組合의 參與意識低下와 그에 따른 利用高의 低下를 招來하여 結果的으로 事業量의 擴大을 가져오지 못하였거나」 등의 單位組合規模擴大가 기대한 성과를 가져 오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17) 그런데 規模擴大에 의한 參與意識의 低下問題는 두가지 要素를 考慮해야 될 것 같다. 첫째는 里洞組合이 洞里內에 있을 때는 그것을 個性的 關係가 있는 것으로 認識하였다가 組合組織體가 移動하고 規模擴大에 따라 非個性化에 의한 소원감이 생김과 동시에 家産의 保存所有意識에 의한 非共同出資慣習이 결부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과, 둘째로 部落地域的

(15) 金大煥, 「韓國에 있어서의 協業化의 現況 및 그것이 農村의 社會構造變動에 미치는 影響」, 『韓國文化研究院 論叢』, 제16집, 1970. 金大煥教授는 忠淸北道에서는 96個所의 協業農을 分析하는데서, 黃田協業農場은 農場에 出資(土地出資)한 財産을 金融機關에 의뢰하여 評價하고 出資證書를 발행하여 證書를 교부하였다(p.135)고 하고, 主作 全面協業組織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陰城郡 筮極面 道新里의 京村部落에서는 設立 初期에 특히 老人層과 婦人層이 土地文書를 내어 하나로 묶는데 대하여 土地所有權의 不安으로 반대가 심했다(pp.137-138)고 하고, 家産의 土地所有의 非心속성을 지적하고 있다.

(16)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농업연감 1970, pp.92-93.

(17) 農業協同組合中央會調查部, 『農民들의 協同의 行動參與에 關한 調査研究』, 1969, pp.95-96 및 p.93.

關係領域을 초월하는 傳統的인 血緣의 結合關係가 里洞組合單位에서 비로소 地域的 關係領域을 基礎로 하는 共同結合關係가 形成되는 것이고 이 關係의 基礎위에서 經濟的 協同性이 地域共同體의 協同性과 一致化하는 始發點이 있었다고 보면, 이 地域的 部落共同體의 境界를 가로 질러 公式的 組織關係를 設定한다는 것은 出資 및 組織體에의 同一視에 대한 動機를 弱하게 해 줄 것이라는 짐이나.

(2) 農村의 農業生産過程에 있어서 중요한 勞動形態는 표 2에서 보듯이 家族勞動과 雇傭勞動(머슴 및 품팔이) 및 품앗이다. 그리고 그 어느 것도 農業勞動力의 離村傾向에 의하여 近來에 감소하고 있다. 軍威 西京里의 경우 調査對象者 (50명) 중에서 머슴雇傭은 없으며, 지난 1년동안 품팔이는 28명이 408일간 했으며 품앗이는 34명이 250일간을 하였다. 그외의 勞動形態는 없다. 단지 道路 및 저수지 補修를 위하여 共同勞動한 일이 있다. 事實, 傳統的인 勞動交換形態인 머슴 품앗이 품팔이의 勞動이 간존하는 것은 1949年의 農地改革法이 耕者有田이라는 政治的 平等價値를 經濟的 또는 技術的으로 農業經營上

<표 2> 연도별 노동종별 농가당 투하노동시간

단위 : 시간

연 도	가족 노동	고용 노동	품앗이	합 계	대전년증감 %
1962	1814.80 71.6	511.67 20.2	209.93 8.2	2536.60 100.0	—
1965	1862.67 72.1	555.16 21.5	166.51 6.4	2556.84 100.0	—
1966	1809.84 70.8	565.52 22.1	181.22 7.1	2556.86 100.0	△1.1
1967	1713.03 70.8	512.37 21.2	192.84 8.0	2418.24 100.0	△5.4
1968	1623.66 73.4	442.41 20.0	146.84 6.6	2212.91 100.0	△8.5
1969	1590.33 72.9	410.58 18.8	179.99 8.3	2180.90 100.0	△1.4

자료 : 농림부 농가경제조사

의 農土適正分配보다도 더욱 重要視한데 연유하여, 無畝作層과 零細農을 尙存시키는 한편으로 經營能力이나 自家勞動力에 比하여 過多한 農家層이 있기 때문이다. (18)

傳統的인 부레組織은 全國의으로 사라진듯 하다. 그러나 農地改革後에 위의 세가지 勞動形態外에 나타난 것이 있다. 첫째는 고지 勞動이다. 고지 勞動은 「一定한 面積의 農地를 耕作하는데 必要한 主要한 投入勞動을 다른 農家에게 一括해서 請負케 하는 것」인데, 이 고지 勞動은 「1年동안 一定面積의 土地에 固着되게 되므로 勞動力을 農村에 滯留시키는

(18) 丁炳炆, 「韓國의 農業勞動에 관한 一考察」, 『經濟論集』, VI권 2호, p.45.

原因이 되고, 「그 勞動條件이 合理的으로 決定되지 않으며, 「그 農業經營方法은 近代的인 企業的 經營과는 距離가 멀기 때문」에 本質적으로 近代的인 것이 아니다.⁽¹⁹⁾ 둘째는, 품앗이와 품팔이가 합치면서 「두레」의 특징을 다소 같이하는 形態이다. 이것은 전북 정읍군 고부면 일대에서 「作業班」이라고 부르고 있다.⁽²⁰⁾ 이 作業班은 個人(남자 또는 여자끼리)이 단위가 되어 10 여명씩 한 班을 形成하여 한 농사철 동안 집단적으로 勞動하고 그 동안에 集團離脫 방지에 대한 다소의 강제성을 가지며 班員의 農家에 대한 相互間的 품앗이 뿐만 아니라 한 班單位로 품팔이 하여 소위 勞賃을 追求하기도 한다. 이것은 農家の 勞動力 부족을 메우는 동시에 賃金勞動者로서의 수입을 갖게 하고 젊은이들의 單獨的 勞動의 기쁨을 막는 共同體的 壓力을 加하고 作業의 集團的 效率性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어서, 傳統的인 互惠的 勞動交換協同과 近代的인 經濟的 利益追求, 勞動參加에 대한 共同體的 倫理性 및 集團的 作業의 社會心理的 要素를 融合한 것으로 상당히 近代的 性格을 띠어나.⁽²¹⁾

傳統的인 勞動交換의 慣行을 관찰컨대 勞動協同의 條件下에서 勞動交換量에 대해서는

(19) Ibid., p.45 및 p.49. 이 고지勞動은 湖南 畚作地帶에 나타나고 있다. 주 丁炳焦教授가 조사한 全南 靈光郡 一帶 뿐만 아니라 筆者가 1970年 여름에 全北 井邑郡에서 발견되었다. 고지勞動에 포함되는 勞動은 보통 移秧 除草 收穫 및 收穫物運搬등이며, 1斗落(200坪)의 논넓이를 計算單位로 하여 한 고지라고 하며, 품팔이 노동은 임시적이고 不安定한데 비하여 고지勞動은 確定되고 품앗은 보통 先拂려서 앞는데 고지는 새해 農事가 시작되기 前에 한 畝으로 先拂려지고 고지먹는 農家の 生計維持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고지를 준 家口는 고지논의 所有權과 耕作權도 완전히 장악하므로 小作制度처럼 土地를 잃을 위험성도 없고 資本投下나 土地改良등으로 생기는 土地收益의 増大도 모두 고지를 준 家口에 귀속되므로, 畚作地帶에서는 널리 채택되고 있다(pp.45-49). 그리고 고지勞動도 여러 形態가 있는데 심을고지, 관고지, 짚고지, 메우는 고지, 온고지, 반고지 등이다(崔潤穆, 「農業勞動層의 社會的 性格」, 『社會學論叢』, 1집(1964), pp.47-48.)

(20) 筆者가 방문한 정읍군 고부면 신증리의 경우는 「作業班」이 근래에 행하여졌다고 하는데, 金一鐵教授는 日帝末期부터 있었던 것으로 발견하고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丹月里(京畿道利川郡)에서 보면 日帝末期때 부터 組織된 作業班이란 것이 있어 個人農家을 中心으로 한 두레組織이 이 作業班에 依하여 完全히 代置된 感이 있다. 丹月里에서는 10餘農家를 單位로 하여 組織된 이 作業班이 모든 共同勞動의 核心을 이루고 있다. 組織에 있어서는 過去의 두레와 비슷하나 그것이 特定大農을 中心으로 하지 않고 個別農家를 基礎로 하고 있다는 점이 틀린다. 從來에는 두레가 大概 경영규모가 類似한 農家끼리 고용노동의 相互交換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겠는데 그것은 두레가 어디까지나 勞動의 互惠的 交換이었음을 말한다. 이 단點에서 볼때 丹月里는 完全히 近代的 共同作業組織에 依하여 傳統的 農家協同이 代替되었다고 보겠다」(金一鐵, 「韓國農民의 社會的 協同과 그 變化」 『韓國社會學』, 제2집(1966), p.122).

(21) 두레는 그 組織과 運營에 대단히 合理性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組織의 構造는 全村落의 壯丁을 成員으로 하는 全體主義的 組織이어서 強固한 集權的 指導體系를 갖추고 相互互惠性을 追求하는데, 集團的 作業의 效率을 위해서는 農旗 農樂 그리고 共同食事(酒食)를 이용하였다(金永喆, 「韓國社會倫理研究試論 一村落共同體規制를 中心으로」, 『亞細亞研究』, XII권 3호, pp.51-58).

어떤 生活部分 要素보다도 正確한 計算性을 發展시켜 왔으며, 두테와 같이 組織的 合理性에 대한 經驗을 갖고 또한 근래에 雇傭勞動(특히 品賣이 勞動)에 있어서의 貨幣報償의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과 「作業班」에서 보이는 것처럼 貨幣利得追求를 위한 組織的 協同行爲 등이 상호질부되어 農業勞動力移出에 의한 농민기의 노동력부족 狀況에 대응하여 農業勞動協同을 近代의 組織形態로 轉換시킬 條件을 이루고 있다고 보겠다.

(3) 軍城 西京里의 경우, 應答者 50명 중에서 은행에 저금을 하는 자가 1명, 우편보함에 가입한 자가 1명, 그리고 冠婚喪祭契에 14명, 친목·문중契에 12명, 물품契에 3명, 순저축을 위한契에 1명이다.契의 명칭도 多樣한데, 친목계, 산림계, 송기계(喪契), 살계, 관혼계, 태지계, 재봉틀계, 그릇계 등이다. 친목계는 性·年齡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일년중 한가한 때에 서로 모여 會食하고 놀이하는 것이 目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예정되어 있거나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大事, 즉 結婚이나 回甲의 비용을 미리 마련하기 위한 것 그리고 전연 예기치 않은 일(葬禮)을 대비하기 위한 것 등은 우리나라 農村部落에서 一般的으로 내리오는 慣習이다. 이러한 저축행위는 消費의 社交的 情緒의 要素를 重視하고 消費의 保護의 基準중에서 저축-宗教的 儀式에 志向된 것으로, 앞서 同族集團의契에서 보았듯이 傳統的인 家族主義價値에 걸부된 消費志向的 協同性에서 뒷받침을 받고 있다. 따라서 消費行爲를 통한 地位評價와 道德的 機能遂行은 一般的으로 家族主義的 價値의 規制를 받고 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協同하는 動機를 상호간에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²⁾ 한편 근래에 消費의 社交的 情緒의 要素에 못지 않게 財貨와 用役의 效用價値要素를 중요시하여 이와 가장 原初的으로 結合되어 協同的 저축을 보이는 것이 物品契이다. 재봉틀, 그릇(옛날에는 놋그릇이었는데 요즘은 스텐그릇), 장농 이불 등등 살림살이에 편리하고 耐久性이 강하면서도 값싼 것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西京

(22) 金三守教授는 李朝社會의 契形態중에서 團體性에 의한 自治性이나 殖利性이 함친 것으로, 商工業面에서도 客主會, 擔負商契, 工匠契, 六矣廳契, 賃人契, 村落單位로서는 松契, 軍布契, 鄉約契, 里契 및 戶契, 大同契, 血緣的인 團體로서는 花樹契, 四村等, 親睦的인 것은 同庚契等, 그리고 相互扶助的인 것은 爲親契, 喪徒契, 勞動契, 歲饑契 등이 있다고 한다. (op. cit., pp. 679-680). 이것중에 農村에 관련된 것을 보면 비록 殖利性은 갖고 있어도 저축 투자의 協同的 機能을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契의 形態가 그 經濟的 社會的 機能에 따라 변모하고 있는 것인데, 例컨대 喪契는 農民의 빈번한 社會的 移動과 契結合關係의 소규모성을 능히 극복할 만치 그 社會的 意義와 機能이 아직도 強力하기 때문에 婚契에 比하여 普遍的이며 一般化되어 있다고 하여 「婚契보다는 차라리 都市風의 契 말하자면 돈契, 살契 같은 것이 많이 發生하였는데 이러한契는 利子增殖이 용이시 오히려 婚契를 통하여 經濟的 協助를 받는 것보다 條件이 有利하기 때문에 婚契가 存續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婚契보다는 차라리 돈契, 살契로 結婚費用을 준비할 수 있다. ……婚契는 完全히 經濟合理的으로 그 價値가 變하였고 同時에 經濟合理的인 價値가 重要하기 때문에 보다 나은 經濟的 合理性을 가진 錢契, 살契에 依하여 代替되고 있다」(金一鐵, op. cit., pp. 124-125).

리의 경우는 저축 재투자론 위한 協同은 거의 없으며 또한 金融機關을 이용하는 저축행위도 없는 형편이며 이 再投資는 政府의 融資金에의 依存動機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에 依存하려고 하든지 또는 個別的 저축활동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契에 의한 經濟的 動機는 傳統的 家族主義價値에 의한 協同을 우선 받아드리면서 한편으로 消費品의 效用性에서 일차적으로 민감하게 나타나고 더욱 나아가서 저축 재투자에 까지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消費行爲의 保護的 基準에 있어서 受動的이며 自衛的 立場에 있고 積極的인 것으로는 아직 변하지 않는 것이다.⁽²³⁾

(4) 軍威의 西京里에 있어서 지난 5년동안에 新技術에 接觸한 狀況은 표 3과 같다. 이 新技術의 利用은 勞動을 代置시키는 效果를 갖는 것이 우선적이며 오히려 勞動을 집중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것이거나 技術利用에 경비가 많이 요구되는 것은 쉽게 受容되지 않고

<표 3> 지난 5년동안 新技術使用여부

	사용자	비사용자
(1) 이당후 세레산치회 또는 부리에스유제 살포	48	2
(2) 비무코롱으로 증자소독	46	4
(3) 제초제(2-4D, Stem-F34, P.C.P.)	43	7
(4) 인력살분기	40	10
(5) 地方보전을 위한 客土	39	11
(6) 토양양산화 방지를 위한 석회사용	32	18
(7) 제초기	29	21
(8) 등력살분기	23	27
(9) 등력 탈곡기	15	35
(10) 深耕多肥제배	12	38
(11) 양수기	7	43
(12) 경운기	1	49

있다. 그리고 新技術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土地生産性を 向上시키는 것들이며, 村落에서의 普及程度는 새로운 技術項目을 到達하고 受容하는 示範的 農家에서 新技術에 대한 投資가 적으면서도 效果가 크다는 것을 보여 주는데서 거의 決定되는 것 같다. 따라서 西京里的

(23) 農協中央會의 報告에서도 農村에서는 產業契, 利殖契는 조식대상자의 10%에 不過하다고 하고 또한 가장 關心이 가는 契 중에서도 利殖契는 7%, 產業契는 7%로 되어 있으나 (1969, op. cit., pp.43-44), 한편 李昌烈教授의 調查報告에서는 農民의 경우 營業자금조달이 4.9%, 利殖契 16.7%, 저축이 8.9%인데, 全體應答者의 契加入目的을 分析한 結果 小額의 契에 加入한 사람은 現金비용, 학비, 집의 용품등의 消費의 用途를 위한 것이고 高額의 契에 加入한 사람은 貯蓄의 目的 중 營業資金調達이라는 經濟的 目的意識이 강하였다고 한다(李昌烈, 『韓國의 金融과 資本動員』, 高麗大學校出版部, 1966, pp.160-167).

경우에도 표 3의 項目중 7개를 사용해 본자가 14명이며 5~9개의 이용이 42명이다. 그리고 新技術의 전달 매개체와의 接觸은 표 4에서 보듯이, 農業專門書籍의 구독을 14명

<표 4>

지난 5년동안에	예	아니오
농사지도 교육을 받았음	10	40
전시포장에 가봄	5	45
전문서적을 구독	14	36
독농가를 방문	8	42

이, 農事指導教育을 받은 10명, 독농가 방문이 8명, 전시포장에 가 본 것이 5명으로 되어 있다. 물론 모든 農民이 新農事技術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거나 受容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新技術과 新技術 傳達媒介體와의 接近은 農民의 自發的 協同에 의한 것이 아니고 農協, 農事指導所 및 行政當局의 誘導에 의하고 있다.

Ⅲ. 貯蓄投資志向성과 消費志向성

1. 價值的 水準

教科書分析에 의하면 儒學의 教科書는 物質輕視價値志向성이 나타나 있다고 하며⁽²⁴⁾, 한편으로 19世紀後期の 西洋技術受容에 대한 主體的인 思想的 背景이 儒學의 「格物致知」와 「利用·厚生」의 思想에 있다고 하고, 李朝에 있어서 格物致知精神이 合理的 精神으로 계속 발전하지 못하고 性命, 義理의 學에 억눌려 있었으며, 利用·厚生の 精神은 「正德」이라는 朱子學的 倫理概念에 돌리어 「修己」에 대하여 副次的인 문제로 소외되었다고 지적되고 있다.⁽²⁵⁾ 李相殷教授는 儒家의 經濟理念은 그 目的이 國民을 養育함에 있다고 하

(24) 金鏞東, 「教科書分析에 의한 韓國社會의 儒教價値觀研究」, 『李相伯博士回甲紀念論叢』, 乙酉文化社, 1964, pp. 331-368.

(25) 金泳鎬, 「韓末 西洋技術의 受容」, 『亞細亞研究』, XI권 3호, p. 301. 韓末의 西洋技術受容에 있어서 價值的 要素의 作用에 대하여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李朝의 儒學은 西洋文明의 도입을 받고 「正德」概念은 「衛正斥邪」思想으로 展開되었고 「利用·厚生」思想은 實學者와 開化派에 의하여 技術受容思想으로 展開되었다. 「衛正斥邪」의 衛正이란 朱子學的 價値秩序를 지킨다는 뜻이요, 斥邪란 邪 즉 洋夷를 물리친다는 뜻이다. 「衛正斥邪」思想에서는 技術도 한갓 洋夷의 「曲技」에 不過하다. 이것은 그후 技術受容을 阻害하는데 매우 重要的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17세기 中葉이래 종래 儒學의 非實用的 성격을 맹렬히 反省 批判하고 原始儒教의 「利用·厚生」思想을 中心으로 技術과 현실적인 社會經濟의 諸問題를 重視하는 새로운 學風 즉 實學이 後進하는 나와같이, 당시의 社會經濟의 發展을 반영하면서 일어났다. 實學者들은 종래의 「正德」이 있는 후에 「利用·厚生」이 있다는 理念秩序를 배격하고 「利用」이 있는 후에 「厚生」이 있을 수 있고 「厚生」이 있는 후에 「正德」이 있을 수 있다고 主張하였다. 그리하여 「利用·厚生」에 관심을 모음으로써 時尙기술의 受容論으로 까지 전개되었다. 단하자면 時尙의 기술은 이러한 「利用·厚生」思想과 연결되어 受容될 수 있었던 것이다.」(Ibid., pp. 301-302).

고 「保蔭은 백성들로 하여금 집집마다 다 “仰足以事父母·俯足以育妻子·凶年免於死亡” 할 程度에 그치게 하는 것 뿐이요, 大地主나 大財産家の 發生은 될수록 防止하려는 것」이라 하여 經濟에 대하여 消極的 價値만 認定하고 「聚財」「致富」의 積極的 價値를 인정치 않았다고 하며, 經濟的 價値가 道德的 價値의 下位에 있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하여 李教授는 韓國에 있어서 儒敎의 功罪를 論하면서 儒敎가 商工階級을 賤視한 罪는 認定하고 있다.⁽²⁶⁾ 한편 儒學과 관련하여 近代志向的 價値體系를 整備하려는 試圖는 實學研究에서 進行되고 있지만,⁽²⁷⁾ 어쨌든 儒敎는 經濟的 價値를 窮極的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은 前提되고 있다.

그런데 傳統的 價値에 대한 受容과 評價는 個人들에게 動機化시켜 준 「祖上들의 經濟的 價値」에 대하여 評價시켜 보는 方法을 통하여 볼 수도 있다. 표 5 는 (1)근면성, (2)검약성, (3)허례허식성, (4)聚財性, (5)投資性 및 (6)共同的 安定性의 側面에서 祖上들에 대한 應答자들의 評價態度이다. 이 중에서 經濟的 價値에 소극적인 것이라고 評價된 것은

<표 5>

우리 조상들은	예	아니요
(1) 부지런 했다	35	15
(2) 검소하게 사는 것을 자손들에게 배워주었다	33	17
(3) 허례허식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한 것 같다	38	12
(4) 크게 致富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았다	30	20
(5) 돈을 모으면 돈을 버는 일에 다시 투자하려고 했다	30	20
(6)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편안히 사는데 노력했다	41	9

(26) 李相殷, 「儒敎의 理念과 韓國의 近代化問題」, 東國大學校, 『韓國近代化의 理念과 方向』, 1967, pp.193-195 및 pp.207-210. 儒敎가 商工階級을 賤視한 理由는 우선 儒敎의 義利觀에 있다고 하고, 이 義利觀은 孔子가 말한 “君子는 義에 밝고 小人은 利에 밝다”, “利에만 쫓아서 行하면 怨望이 많다”, “上로써 道에 뜻을 두면서 惡衣 惡食을 부끄러워하는 者는 足히 더불어 말할 수 없다”, “不義로써 富하게 되고 貴하게 되는 것은 나에게는 旣 구름과 같은 이야기다” 한 태시 나타나 있고, 利는 私利 私慾의 利를 말하고 義는 公利 公益인데 당시 商人들이 私利를 追求하는 小人이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儒敎의 經濟政策에 있어서도 德을 본을 삼고 財는 末로 보아서 나라는 財利를 위함이 利되는 것이 아니라 義를 위함이 利되는 법이라고 하였고 生産하는 사람이 많고 먹는 사람이 적고 일하는 사람이 부지런하고 씁쓰기가 절제 있으면 財가 尙상 足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經濟的 利益의 追求로 不義(不平等)를 가져오는 産業開發 내지 興利事業이 배격되고 “安分守業”하는 農業經濟를 追求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李教授는 儒敎의 商工輕視는 인정하지만, 보통 儒敎의 病弊라고 지적되는 다른 여러가지는 그것이 儒敎의 本質에 屬하는 것이 아니고 韓國의 傳統社會의 構造의 特殊性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고 있다. (Ibid., p.211-212).

(27) 千寬宇, 「韓國實學思想史」, 高大 民族文化研究所, 『韓國文化史大系 VI』, 1970, pp.959-1051. 「다시 말하여 朝鮮後期 實學에서 우리는 近代의인 것, 바로 그것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近代志向的인 것은 이것을 찾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찾으려는 것이다」(p.1034).

(3)허례허식성과 (4)聚財性 및 間接的으로 (6)共同性 安定性이다. 표·5에서 허례허식성에 대해서는 禮의 과중한 物質의 消費志向性이라고 하는 儒敎의 弊弊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評價에 同調하여 나온 것이다. (4)聚財의 消極性和 (6)共同的 安定性은 「安分守業」과 연관되어 經濟的 葛藤과 對立이 없는 共同生活이라는 儒敎的 價値와 合致되고 있다. 그런데 儒敎的 價値에서 보던 (5)投資性에 대한 積極的 評價는 대단히 역설적인 評價이기도 한데, 이 評價態度에는 應答者 자신들의 動機가 내포되었을 것이지만, 한편으로 근면하게 저축하고 殖利하여 土地所有를 확장하여 「地主」의 地位에 오르고 있었다는 事實을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投資行爲 자체는 合理化되는데 「致富」는 다른 價値要素 즉 「德」이나 「修己」에서 制限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修己와 관련되는 근면성과 겸약성은 아무런 모순없이 經濟的 價値要素로 물려 받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經濟的 價値志向性을 취급하는데는 經濟行爲를 合理化시켜 주는 價値體系에 關한 接近도 重要하지만 이미 制度的으로 주어진 經濟體系를 어떻게 認識하고 있는가도 重要的 問題이다. 表 6의 (1), (2) 및 (10)은 資本主義的 經濟行爲에 관한 것이고, (3),

<표 6>

	예	아니오
(1)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최고다	46	4
(2) 돈을 벌면 번수록 더욱 좋다	46	4
(3)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42	8
(4) 놀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 보람있는 것이다	48	2
(5) 부자가 되거나 가난해 지는 것은 운명이다	30	20
(6) 요즘 세상에는 돈을 정당하게 벌고 모으기는 어렵다	43	7
(7) 요즘 사람들은 남을 속이면서 돈을 모으려고 한다	42	8
(8) 농산물을 사들이는 사람은 값을 속일려고 한다	36	14
(9) 농사지으면 이득이 난다	22	28
(10) 자본주의는 사람들간의 정을 없애준다	34	16

(4)와 (5)는 일(勞動)의 價値에 關한 것이고, (6), (7), (8) 및 (9)는 經濟體系의 制度的 機制에 관한 것이다. 軍威의 西京里 應答者의 경우에 둘째 요소인 勞動의 價値와 그 勞動의 經濟的 結果에 대한 態度는 經濟的 價値側面에 대하여 積極的이다. 일을 한다는 것은 보람있는 것이고 職業에는 貴賤이 없다는 態度를 대다수가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經濟的 結果에 대해서는 다분히 運命論的 態度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西京里의 응답자 50명 중에서 轉職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16명이고 그외는 都市에 나가서 장사라도 하고 살고자 하며, 또한 실제로 移村한 사람들이 많고, 移出한 家族員 중에서 送金해 오는 경우

가 있다는 것과 農業의 經濟的 수익성이 相對的으로 낮아서 農村의 現在 狀況으로는 자기들의 經濟的 地位가 改善될 可能性이 적다고 보아 農村에 居住하는 限 經濟的인 相對的 不利性은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는 意味에 있어서 「運命」이라고 보는 것이며 자기들의 經濟的 地位가 運命的으로 決定되어 있다는 意味는 대체로 배제하고 어떠한 經濟的 活動을 하더라도 성공과 실패는 運命(운수)로 작용한다는 뜻이다.

첫번째인 資本主義的 經濟行爲에 대해서는 積極的이면서 그 本質이 貨幣經濟이며 貨幣의 重要性을 바로 認定하고 있다. 즉 資本主義에 있어서는 돈이 최고이며 돈은 벌면 벌수록 좋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農業은 米穀과 麥類 등의 食糧作物을 중심으로 하는 主穀生産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8) 農民에 있어서 貨幣經濟에 接觸되는 범위는 일단 農産物의 商品化率에 의하여 限定된다.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의 調査에 의하면 표 7에서 보듯이 農家當 平均收穫量에 있어서 米穀과 麥類의 穀物은 아주 적고 또한

<표 7> 戶當穀物平均收穫量과 平均商品化率

	戶當平均收穫量 (D)			戶當平均商品化率		
	1964	1965	1966	1964	1965	1966
米 穀	2097.0	2334.0	2026.3	36.2	47.8	49.9
麥 類	1010.0	868.7	1039.8	13.7	29.2	21.7
조	109.0	52.9	※	11.6	20.9	※
수 수	12.3	12.1	5.9	19.5	20.6	30.5
옥 수	18.4	20.9	20.6	7.6	47.8	66.0
모 밀	11.7	12.0	3.7	60.7	10.0	70.2
其 他 雜 穀	1.0	7.7	※	10.0	21.8	※

※ 未調査인

資料：農業協同組合中央會調査部, 『農家の 農産物販賣狀況과 農業 및 家計用品購入狀況調査報告』, 1967.

麥類는 米穀의 半정도에 불과한데, 米穀과 麥類의 商品化率이 높아가고 있지만 1966년에 米穀과 麥類의 商品化率이 각각 49.9%와 21.7%에 지나지 않는다. (29) 그리고 農家の 耕地規模가 적을 수록 農産物의 商品化率은 낮다. 사실 農産物의 商品化率이 낮은데서 資

(28) 戶當平均 農産物의 收入構成을 보면, 1966년에 ①農作物收入이 82.7%, ②特用作物이 2.4%, ③農作物 以外 收入(養畜 養蠶)이 8.3%, ④畜産物의 1.4%, ⑤農産加工이 0.4%, ⑥其他 4.9%, ⑦在庫增減이 9.0%이며, 1968년에는 ①이 74.4%, ②가 3.1%, ③이 9.8% ④가 2.4% ⑤가 0.4%, ⑥이 4.6%, ⑦이 15.8%로 되어 있다.

(29) 軍威郡이 포함되어 있는 慶北準山間混作地帶에 대한 農林部의 調査를 農協에서 分析한 것을 보면 耕地規模에 關係없이 米穀과 麥類의 商品化率이 표 7의 것보다도 훨씬 낮다. 즉 米穀은 20.5%, 麥類는 17.3%를 나타내고 있다.

本主義의 利潤概念은 설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外形으로는 傳統的인 自給自足的 安定性을 갖고 있는 듯한 農家에서 貨幣에 대한 認識이 強한 것은 貨幣經濟의 壓力을 받고 있는데 있다고 본다. 그것은 農產物의 판매 특히 主穀의 판매가 資本主義의 價格機制에 의하지 않고 政策의 統制를 直接的으로 받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農業生產의 用品과 家計用品의 購入은 近代經濟의 流通構造에 휩싸여 貨幣支出의 強要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 貨幣支出의 強要는 自給自足性 마저도 희생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方向으로 파괴시키기까지 한다. 예컨대, 農家의 穀物購入을 分析한 農協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고 이 3 個年間을 통한 보리의 購入量에 있어서도 細農 및 小農層에서 가장 많은 量을 購入함으로써 細小農의 自給食糧不足現象을 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米穀을 通하여 細小農에서 가장 많은 量을 購入하고 있는 것은 農耕地의 零細性으로 因한 自給生産量의 根本的인 不足現象에서 오는 結果이며, 中農 및 2 町步以上을 耕作하는 大農에서 米穀을 購入하고 있는 것은 急迫한 現金需要의 充當을 위해 每年 되풀이되는 收穫期의 窮迫販賣에 따른 米穀의 過度한 出廻에 의한 端境期의 再購入으로 보아진다.」⁽³⁰⁾ 그리하여 貨幣需要에 應당하고 또는 生産의 利潤追求의 概念設定은 現在의 農業經濟構造下에서는 적어도 非主穀作物의 生産이나 農業外 所得에서 求하고자 하는 것에 一般的으로 動機化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러한 貨幣經濟의 「支配力」과 이에 결부된 利潤追求의 概念은 農民들로 하여금 生産構造 자체를 이에 適合한 것으로 轉換시켜야 한다는 충분한 動機와 價值志向性을 갖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農民은 農業生産過程에 있어서 家族經營의 特性和 勞動交換의 共同體의 關係에 依하여 生産關係가 대단히 個性的 關係에 特性을 두고 있는데 대하여 資本主義의 經濟關係는 非個性的 組織機制에 입각하여 利潤追求의 競爭性을 認知함으로써 資本主義는 사람들간의 情을 잃어 준다는데 대부분의 應答者가 同意하고 있다. 이 評價態度는 특히 응답자들에게 接觸되고 있는 流通機制가 대단히 健全치 않다고 보는 것과 연관되고 있다. 즉

慶北華山間混作地帶의 耕地規模別 農產物 商品化率(%)

		0.5町步未滿	0.5~1.0	1.0~1.5	1.5~2.0	2.0町步以上	平均
米	穀	16.9	18.3	23.8	27.3	16.3	20.5
麥	類	14.4	12.8	26.8	17.8	10.5	17.3
豆	類	37.5	38.0	39.6	97.4	59.9	48.1
薯	類	5.5	12.7	8.3	65.0	23.4	14.8
雜	穀	100.0	15.0	7.1	—	—	23.1

資料：農業協同組合中央會調查部, 『韓國農業經營의 類型과 指標』, 1969.

(30) 표 7의 資料 pp. 59-60.

표 6에서 세번째 次元으로 제시한 (6), (7), (8) 및 (9)에서 보는바와 같이 농사는 이득이 나지 않는 것인데 더구나 농산물을 사들이는 사람이 값을 속일려고 하고 따라서 요즘 세상에 돈을 정당하게 벌고 모우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貨幣價値에 대한 積極的 志向은 보이면서도 貨幣經濟機制 자체에 대한 信奉은 弱하다. 이와 관련하여 貨幣經濟機制에 의한 피해와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農民 스스로의 近代的 組織協同의 必要性을 한 가지 方案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2. 文化的 生存水準

1960 년대에 있어서 韓國의 產業別 民間消費의 質的 變化는 顯著한 것이 아니라고 分析되고 있다. 產業別 民間消費支出의 構成을 보면 農林水産物은 1960 년에 38.3%인 것이 1966 년에는 41.4%로, 광산물은 0.3%에서 0.1%로, 공산물은 27.3%에서 27.7%로, 社會間接資本은 5.1%에서 5.9%로 그리고 서비스는 29.0%에서 24.9%로 되어, 鑛産物과 서비스에 대한 消費支出의 比重이 다소 줄어 들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工産物에 대한 民間消費支出의 內容이 뚜렷한 變化를 보이고 있다는데, 纖維類에 대한 支出比重이 증대되고 특히 纖維製品에 대한 支出比重이 높아지고 있으며, 둘째 食飲料品 煙草 木製品 고무製品 유리·土石製品에 대한 支出比重이 감소하고 셋째로 紙類 化學製品 石炭製品 金屬 2次製品 電氣機械등에 대한 支出比重이 增大되고 있다.⁽³¹⁾ 이러한 消費類型의 變化는 消費品目의 多樣化와 함께, 消費者의 欲求를 創造하면서 또한 欲求充足에 相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消費財生産에 있어서 耐久財의 生産指數가 非耐久財의 生産指數보다도 높은 傾向의 生産類型變化도 消費類型의 變化를 反映하기도 한다.⁽³²⁾ 이러한 消費類型의 質的 變化는 곧 「社會를 永續시키는 데 대하여 社會成員의 대다수 또는 전부가 正常的으로 生活하는데 공통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消費의 文化的 生存基準의 物質的 內容을 이 루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文化的 生存基準은 곧 최저생계비의 測定에 관한 논의가 되겠지만, 이것을 價値志向의 側面에서 알아 보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사람답게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한 결과 西京里의 응답자는 27 명이 事業家(大商人 16 명, 企業家 11 명), 그리고 21 명이 高級公務員 그리고 2 명이 其他로 대답하

(31) 邊 衡尹, 『消費構造의 變化와 流通經濟』, 大韓商工會議所, 1969, pp.34-36

(32) Ibid., p.49.

	1965년	1966년	1967년	1968년
消費財				
{ 耐久財	100.0	112.9	129.3	204.9
{ 非耐久財	100.0	115.5	140.9	174.6

資料: 淸國銀行

였다. 이 職業階層은 家計費調査에 대상이 된 層에 근사한 것이 管理 및 經營者에 屬하는 것이라 하면 이들의 家計費가 곧 西京里의 응답자가 말하는 文化的 生存의 消費基準이라고 볼 수 있다. 經濟企劃院 都市家計費調査에 의하여 이 階層의 家計費를 都市家計費와 比較해 본 것이 표 8이다. 물론, 都市의 管理 및 經營者의 家口當月平均 家計費는 同年

<표 8> 都市家計費(家口當月平均)

	1968년		1969년		관리 및 경영자(1969년)	
	(원)	(%)	(원)	(%)	(원)	(%)
평균가족수	5.70		5.53		6.66	
소비지출	23,190	100.0	26,070	100.0	49,700	100.0
식료품비	9,840	42.4	10,670	40.9	17,930	36.1
곡물	4,400	19.0	4,800	18.4	6,290	12.7
부식물	4,000	17.2	4,040	15.5	7,970	16.1
조미료	670	2.9	860	3.3	1,900	3.9
가공식품	240	1.0	270	1.0	370	0.7
기호품	350	1.5	490	1.9	970	1.9
외식	180	0.8	210	0.8	430	0.9
주거비	3,980	17.2	4,820	18.6	10,320	20.8
광열비	1,200	5.2	1,330	5.1	2,570	5.2
퇴복비	2,510	10.8	2,800	10.7	5,590	11.2
합	5,660	24.4	6,450	24.7	13,290	26.7

資料：經濟企劃院

<표 9> 都市家計 雜費의 構成(%)

	1968년	1969년	관리 및 경영자(1969년)
計	100.0	100.0	100.0
의료	11.8	12.2	12.9
미용 위생 용품	15.4	14.9	12.2
문화방구	1.8	1.7	1.4
교육비	27.4	23.4	27.5
교양 오락비	7.6	7.8	8.4
교통통신	15.2	17.4	16.6
담배	11.3	12.1	8.1
기타	9.5	10.5	12.9

資料：經濟企劃院

(1969년)의 都市의 平均 家計費보다도 絶對額에 있어서 23,630 원이 높은 것이며, 構成上으로 볼 때 管理 및 經營者의 家計費에서 平均都市家計費보다도 食料品費 特別 米穀費가 훨씬 낮은 대신 雜費, 住居費 및 被服費가 약간씩 높으며, 雜費의 경우(표 9)에도 教育

費, 其他 및 교양오락비가 약간 높은 반면에 미용위생용품, 교통통신 및 담배의 支出은 相對的으로 낮은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 文化的 生存基準을 어느 정도로 貨幣經濟的 側面에서 評價하는 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다섯식구가 사람답게 제대로 살자면 생활비를 한달에 얼마나 써야」 하겠느냐고 질문한 결과 西京里의 應答者는 일만원단위에 10명, 2만원단위에 14명, 3만원단위에 10명, 4만원단위에 1명, 5만원단위에 10명, 6만원 이상 단위에 5명으로 되었다. 이것을 조잡하지만 각 단위의 中位數를 기준으로 삼아 計算해 보니 平均 5만 5천 원이 된다. 각 개인은 이 消費基準의 評價에 있어서 準據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전체 평균으로는 1969년의 都市 管理 및 經營者의 平均家計費와 近似해 진다. 말하자면 家族員當 일만원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西京里의 應答者에 대하여 調查方法의 限界性 때문에 家計費는 調査할 수 없었지만, 이들은 비록 자기들이 빚을 지고 살고 있지만, (33) 文化的 生存의 消費基準의 水準은 대단히 높게 評價하고 있는 것이다. 이 消費基準은 農林部가 調査한 農家口當 平均 家計費 보다도 훨씬 높은 水準의 것이다.

農家家計에 있어서 消費支出水準은 都市家口의 것보다도 훨씬 낮다. 표 8과 표 10을 比較해 보면, 첫째, 農家에 있어서는 음식물비의 比重이 대단히 높고 이 음식물 비중에서 주식물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都市家口에서는 식료품비의 비중이 相對的으로 낮아졌

<표 10> 農家家計費(家口當平均)

		1964년		1969년	
		(백원)	(%)	(원)	(%)
합	계	1,011.2	100.0	171,371	100.0
음	식	599.3	59.3	79,537	46.4
주	식	479.1	47.4	60,751	35.4
부	식	70.9	7.0	11,636	6.8
조	미	7.6	0.7	2,139	1.3
기	호	17.7	1.8	2,598	1.5
외	식	24.0	2.4	2,413	1.4
주	거	32.8	3.2	7,373	4.3
가	계	75.0	7.4	13,896	8.1
터	복	70.3	7.0	15,506	9.0
교	육	37.5	3.7	11,423	6.7
가	계	196.3	19.4	43,636	25.5

資料: 農林部

(33) 응답자 50명중 빚이 있는 자가 24명이며, 빚진 이유는 營農費가 10명, 家計維持가 7명, 子女 教育費가 2명, 大事에 2명, 기타 3명으로 되어 있다.

<표 11> 農家家計雜費의 構成(%)

	1964년	1969년
計	100.0	100.0
미용 위생	2.9	2.7
의료비	11.0	10.7
교통통신비	5.2	5.2
교제 및 증여비	27.3	26.9
교양 오락비	2.1	1.6
관혼상제비	24.9	24.6
교육의비	2.0	1.7
임차비	3.0	3.6
기타	3.3	1.7
교육비	18.3	21.4

資料：農林部

고 (1969년에 40.9%), 식료품 비중에서 穀物의 比重이 半이하로 되고 오히려 부식물과 조미료 등의 比重이 相對적으로 커졌다. 단지 農家와 都市家口에 있어서 음식물비가 근래에 낮아지는 傾向은 同一하다. 둘째 農家の 住居費比重(1969년에 4.6%)이 낮은데, 都市家口에서는 18.6% (1969년)으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兩家口에서 다소 比重이 높아지는 傾向이다. 셋째, 光熱費는 農家가 都市家口보다도 比重이 높는데 이것은 光熱使用量은 都市家口에서 많더라도 저렴한 近代的 燃料의 利用度가 높은데 기인한다. 넷째, 被服費는 農家보다도 都市家口에서 比重이 높는데 農家에서 比重이 증대되고 있다. 다섯째, 教育費를 포함한 雜費의 比重은 兩者 모두 상당히 높으며 근래에 또한 比重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편 農家에서의 比重이 都市家口보다도 相對적으로 높다. 표 9와 표 11에서 雜費構成을 比較해 본다면 都市家口에서는 教育費, 交通通信, 美容衛生用品, 의료품 등의 比重이 높는데, 農家에서는 교제비 및 증여비, 관혼상제비, 教育費의 比重이 높다. 이와 같은 都市家計와 農家家計의 構成上的 差異는 첫째, 都市와 農村의 職業的 役割의 差異에서 오는 社會的 接觸의 범위와 그 複雜性 및 범위와 복잡성의 日常化程度, 例컨대 交通通信費의 差異와 교제비의 차이, 둘째 消費領域에 따른 消費品目的 代置變化의 단계 내지 時差, 例컨대 主食物 副食物 調味料 蓄好品 등의 順序나 나무 석탄 油類 電氣 및 가스의 順序에 따른 消費欲求對象의 變化와 이에 따른 消費品目的 時系別的 提供과 地域的 配布의 不一致性, 넷째 價値要素의 差異, 예컨대 都市에서는 財貨의 效用價値를 우선적으로 보아 營養價의 多樣性, 住居의 便利性과 安樂性, 衛生保健, 交通通信의 經濟性을 앞서 추구하는데 대하여 農家에서는 이를 뒤따라 가면서도 冠婚喪祭 交際등의 社交的 情緒的 價値要素를

遵守할려는 것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家計費構造差異는 일단 價値體系의 差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면, 西京里의 應答者가 文化的 生存의 消費基準으로 準據한 그 階層의 價値體系까지 遵守할 動機가 있는가의 問題도 消費志向性의 側面에서 취급되어야 되겠으며, 또한 그들이 보여준 이 文化的 生存의 消費基準이 그들의 높은 期待水準으로 표현되었다면 그것은 소위 展示效果의 志向性인가도 밝혀 볼직 하다.

3. 貯蓄投資志向性과 消費志向性

西京里 應答者들의 家計費와 營農費를 자세하게 調査할 수 없어서 支出의 必要性을 어떤 부분에서 강하게 받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지난 일년동안 浬돈을 쓴 品目과 浬돈이 있다면 당장 써야 할 品目이 무엇인가를 세가지씩 알아 보았다. 표 12에서 지난 일년동안 施設投資와 營農費가 가장 큰 浬돈을 차지하고, 消費支出에서는 教育費 의료비 및 살

<표 12>

	지난 일년 동안 浬돈 쓴 곳				浬돈이 있다면 당장 써야 할 곳					
	세	것	째	돈	세	것	째	돈	셋	새
토	14	9	2	2	36	23	8	5		
농	18	—	8	10	17	—	9	8		
농	25	14	8	3	17	3	5	9		
가	9	2	3	4	11	1	8	2		
집	7	3	1	3	14	7	4	3		
살	17	3	2	12	11	—	3	8		
교	32	7	19	16	30	10	10	10		
관	7	7	—	—	8	5	—	3		
병	19	5	7	7	4	—	2	2		
회	3	—	—	3	1	1	—	—		
문	—	—	—	—	1	—	1	—		
계	150	50	50	50	150	50	50	50		

림가구미가 크다. 그리고 浬돈이 있다면 당장 써야 할 品目도 施設投資(특히 土地購入)와 營農費가 우선적이며 消費支出중에서는 教育費와 집수리이다. 浬돈으로는 冠婚喪祭나 親族協調나 門中事業에 지출되는 比重은 弱할 뿐 더러 그 必要性도 弱한 것으로 나와 있다. 총 지출부분에 있어서 投資行爲가 가장 중요하고 消費支出에 있어서도 그 다음이 教育이라는 政治的 目標要素가 앞지고 그 다음 住居生活의 效用的 價値要素에 志向되고 있다. 따라서 投資와 消費에 있어서 效用志向의 行爲가 우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도 文化的 生存基準水準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強한 消費性向을 표현한 것인가? 西京里의 應答者 경우 이들은 強한 消費欲求의 자극을 받고 있다. 즉 표 13에서 보듯이, 消費

으로부터 검약성을 물려 받았는데도 요즘 세상에서는 검소한 생활을 하기 어렵다(31명)고 보고 또한 도시에 가 보면 사고 싶은 物件이 많다(42명)고 하며, 이웃집에서 새물건

<표 13>

	예	아니오
(1) 요즘 세상에서는 검소한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31	19
(2) 도시에 가보면 사고 싶은 물건이 많다	42	8
(3) 이웃집에서 새물건을 사면 나도 곧 사고져 한다	37	13
(4) 신문이나 라디오에서 신진하는 것을 보면 물건을 사고 싶어진다	26	24

을 사면 곧 사고져 하는 欲求도 생기며(37명), 끊임없이 들리는 라디오의 상품선전에 홀리기도(26명) 한다. 즉 有效需要의 增大뿐만 아니라 消費의 相互作用的 誘引, 그리고 매스 미디어를 통한 소비자극의 一方的이고도 계속적인 接近(西京里의 경우 每戶 라디오는 소유하고 있음), 都市의 새롭고 多樣的 消費品의 현혹과 유인등이 消費期待水準을 向上시켜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消費性向이 높다고 分析되고 있다.⁽³⁴⁾ 표 14에서 民間消費支出이 可處分所得중에서 차지하는 比率 즉 平均消費性向은 1960~1967년간 평균 0.993으로서 거의 1에 육박하여 一般消費大衆이 所得의 거의 全부를 消費에 充당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消費性向이 높고 平均貯蓄性向이 극히 낮은 것은 저소득만으로 설명될

<표 14> 가처분 소득과 소비지출 (단위: 10억원, %)

	가처분소득	민간소비지출	평균소비성향	평균저축성향
1960	204.61	207.26	1.013	-0.013
1961	247.95	245.44	0.990	0.010
1962	283.31	293.79	1.037	-0.037
1963	405.70	399.55	0.985	0.015
1964	597.02	585.96	0.982	0.018
1965	671.38	669.08	0.997	0.003
1966	847.95	805.90	0.950	0.050
1967	986.06	973.55	0.987	0.013
평균			0.993	0.007

資料: 韓國銀行, 국민소득연보 1953-67.

수 없다는 것이다. 즉 1962-1967년간 平均 국민저축율이 7.6% (1968년 13.3%), 민간저축율이 6.3% (1968년 6.9%), 정부저축율이 1.3% (1968년 6.4%)로 되어 대단히 낮은 저축율이 사실이지만, 저소득국가에서도 높은 저축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邊 衡 升

(34) 변형운, 「저축증대의 진시효과」, 『저축과 성장』, 한국은행, 1969, pp.176-179.

教授는 국민순저축이 낮으면서도 우리나라 經濟가 지탱될 수 있었다는 것은 국내 총 자본 형성중 순국제이전 50.1%와 외자도입 7.3%라는 海外로 부터의 資本移轉에 의한다고 分析하고, 높은 消費性向을 가져온 요인이 물론 소득수준의 저위와 年평균 15.0% (1962~1967 年)의 物價上昇率에 있기도 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海外로 부터 資本移轉인 원 조물자의 대부분이 消費財 또는 消費財生産을 위한 原料이며 10%에도 미달하는 投資財도 주로 消費財生産을 위한 시설이었다고 하여, 外援이 財貨면에서 消費조장적 효과를 가져 온 것이므로 「외국원조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제전시효과를 보다 촉진시킨 주요 한 요인 인 동시에 전시효과가 야기한 증대된 소비를 현실적으로 가능케 만든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것」이라고 말한다.⁽³⁵⁾ 이러한 分析은 결국 韓國의 經濟構造가 高度消費性向構造로 짜여져 있다고 보겠으며, 이 性向構造는 非自發的인 政治的 變數(해방과 6.25 등)가 要因이 되는 것이지만, 또한 이 構造가 각 消費者의 行爲에 하나의 중요한 條件으로 될 것이다. 그렇다면 家計費支出에 있어서 財貨의 效用的 價値要素가 重視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展示效果性向을 內包케 되는 것이다.

西京里 응답자의 경우, 표 15의 (1), (2), (3)을 보면 貯蓄投資志向性은 強하다. (4)와 (5)의 展示效果的 消志向性에 대하여는 저항적이다. (6)과 (7)은 居住生活의 便利性和 安樂性에 대한 志向性은 크고 여기서 展示效果的 要素가 결부되기 쉽다. (8)과 (9)를 보면

<표 15> 돈이 생기는데로 「아래에」 더 많이 써야 한다

	예	아니오
(1) 모두 저축	44	6
(2) 농사 짓는데	44	6
(3) 새로운 사업에	35	15
(4) 남들이 갖지 않는 물건을 시는데	20	30
(5) 더 잘 먹고 더 잘 입는데	13	37
(6) 유용한 살림기구를 사는데	43	7
(7) 집을 꾸미는데	34	16
(8) 자녀의 결혼에	23	27
(9) 자녀의 교육에	47	3
(10) 동네일을 도우는데	42	8
(11) 친척을 도우는데	42	8
(12) 문중일을 하는데	35	15
(13) 조상과 선조를 위하는데	31	19
(14) 사람을 사귀는데	14	36
(15) 세상구경을 하는데	19	31

(35) Ibid., p.179. 외국원조의 재화별 구성을 보면 投資財는 1955~1958년 평균 11.2%, 1959~1967년 평균 5.8%에 지나지 않는다.

子女에 대해서는 儀式性보다는 教育이라는 目標的 要素에의 志向性이 크다. 그리고 (10), (11), (12), (13)은 傳統的인 共同體的 또는 家族主義的 價値에 대한 것인데, 실제 消費品 目으로서의 支出은 적지만 價値志向性의 면에서는 積極的이며 이는 儀式的 相互作用的 價値要素를 重視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4)와 (15)는 그 志向性이 낮다.

<표 16> 家計의 費目別 所得彈力性

	都 市 家 計			農 村 家 計	
	1965	1967		1965	1967
消 費 支 出	0.87269	0.78598	消 費 支 出	0.7875	0.82991
食 料 品 費	0.61456	0.59724	飲 食 物 費	0.5677	0.58234
穀 物	0.19298	0.12851	主 食 物	0.53691	0.52996
肉 漁 介 類	1.50551	0.99798	副 食 費	0.82597	0.80233
채 소	1.16401	1.12280			
調 味 類	1.05607	0.61608			
住 居 費	0.93787	0.63695	住 居 費	0.997	0.67320
光 熱 費	0.66461	0.51723	光 熱 費	0.40713	0.39627
被 服 費	1.60227	1.2411	被 服 費	1.02371	0.93581
雜 費	1.57497	1.07335	雜 費	1.61442	1.11060
醫 療 費	1.24095	0.92468	醫 療 費	1.10395	0.99666
美 容 衛 生	0.96524	0.65132	冠 婚 喪 祭 費	0.11160	1.23492
教 育 費	2.42460	1.39715	教 育 費	0.25529	2.24610
交 通 通 信	1.89012	1.21098	交 際 費	1.35148	1.28248
씨 어 비 스 料	1.54398	1.08743	其 他	1.00373	0.83073
煙 草	0.84945	0.43607			

資料：韓國經濟開發協會, 『消費의 健全化를 통한 財蓄增大方案에 관한 研究』, 1968, pp. 62-63 및 pp. 66-67.

그런데 貯蓄投資志向性을 제외하고 消費志向性만을 農村家計의 費目別 所得彈力性(표 16)과 比較해 볼 때, 표 15의 (5)의 消費志向性이 飲食物費의 所得彈力性과는 같은 方向이지만 被服費의 所得彈力性과는 對立的이다. 표 15의 (6)과 (7)의 志向性은 住居費의 所得彈力性과는 같은 方向이다. 표 15의 教育目標志向性(9)은 教育費의 所得彈力性과는 直극적으로 一致한다. 그리고 傳統的 家族價値志向性은 冠婚喪祭費 및 交際費의 所得彈力性과 一致한다. 따라서 貯蓄投資志向性은 높은 한편, 消費에 있어서는 財貨의 效用價値志向性이 消費領域에 따라 강하게 나타나며 이것이 展示效果的 性向과 결부될 수 있으며, 또한 傳統的 價値信奉의 消費性向도 강하다.

西京里의 경우 貯蓄投資志向性과 消費志向性을 표 17에서 (1)有效需效, (2)展示效果, (3)貯蓄性向 및 (4)와 (5) 投資性向으로 나누어 要約해 보면, 유효수요의 증대압력을 인

식하는 한편 展示效果性向을 저향하고 대신 저축성향과 投資性向은 강하게 나타낸다.

<표 17> 貯蓄投資志向性和 消費志向性

	예	아니오
(1) 요즘 세상에서는 검소한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31	19
(2) 돈이 생기는데로 남들이 갖지 않은 물건을 사는데 더 많이 써야 한다	20	30
(3) 돈이 생기는데로 모두 되는데로 지출해야 한다	44	6
(4) 돈이 생기는데로 새로운 사업을 찾아 써야 한다	35	15
(5) 돈이 생기는 대로 농사짓는데 더 많이 써야 한다	44	6

IV. 結 語

위에서 분석한 점을 요약하자면, (1) 傳統的 儒教價値는 家産의 所有의 경직성을 갖게 하고 利己의 利益追求를 合理化시켜 주었으나 그것이 貯蓄——牟利의 機制에 依하는 것으로 한정시켰다. (2) 貯蓄의 同族協同性은 協同組織을 통한 利益追求가 아니며, 同族組織이 행한 殖利行爲는 各 參與者의 經濟的 關心은 소외시켜 놓고 祖上崇拜을 위한 社會的 威光의 追求이기 때문에 消費志向的이다. 따라서 貯蓄協同性은 각 개인들의 經濟的 利益追求의 動機를 주지 않았다. (3) 農村部落에 있어서 共同的 貯蓄行爲는 傳統的으로 死亡 結婚 祖上崇拜의 儀式에 相互扶助하는 目的을 갖는 것이 많았으며, 근래에 財貨의 效用價値를 重要視하여 生活의 便益品을 구입고저 하는 協同的 貯蓄行爲가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그 協同性도 個性的 關係의 성질을 갖고 있다. (4) 傳統的으로 生産過程에 있어서 勞動의 相互協同은 高度의 組織性을 갖는 것도 있었으나 그것이 本質的으로 相互扶助의 個性的 結合에 입각하고 있었다. 근래에 傳統的인 相互扶助의 交換要素와 利益追求의 要素가 結合된 形態가 나타나기도 한다. (5) 農民은 資本主義體系에 있어서 貨幣價値의 重要性 및 그 非個性的 機制의 特性, 그리고 利潤追求라는 經濟的 目的도 인식한다. 그러나 自給自足的 生産構造에서 農產物에 대한 낮은 報償의 制度的 統制에 의하여 그 利潤追求의 概念이 農業에서 성립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利潤追求의 動機는 부여 받고 있지만 生産構造에서 그 動機가 극히 제한받거나 좌절되고 있다. (6) 貯蓄投資의 價値志向性은 높다. 展示效果의 消費性向에 대한 傳統的인 억제志向性도 있다. 한편으로 傳統的인 儀式的要素價値에 志向된 消費品目的 所得彈力性은 크게 나타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일 農產物에 대한 合理的 報償이 주어 질때, 農業生産力은 向上시키는 構造的要素로써 體系化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도 몇가지 要素는 그 機能變容을 要求한다. 즉 財産概念의 變化로 土地가 投資되는 資源의 對象으로 轉換되고 그것이 非個

性的 組織體에 共同으로 出資되더라도 個人的 所有意識을 갖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組織을 통한 投資와 利益追求의 機制 자체에 대한 信奉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傳統的 勞動交換組織은 個性的 同一視가 아닌 非個性的 同一視의 對象으로 變化되어야 한다. 貯蓄共同性的 志向도 投資와 利益追求로 權能變容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機能變容은 小農的 經營體가 擴大된 規模의 非個性的 組織的 經營體로의 根本的인 構造變化를 意味하게 될 것이다.⁽³⁶⁾

〔筆者：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專任講師〕

(36) 이 문제는 근래의 協業農에 관한 논의와 관련된다. 근본적 前提는 公式的 組織體의 效率性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金大煥, op. cite., 金俊輔, 「農業近代化의 方案으로서의 企業化와 協業化의 問題」, 東國大學校, 『韓國近代化의 理念과 方向』, 1967, 俞仁浩, 「農業近代化와 農業機械化에 관한 研究」, 『중앙대학교 논문집』, 제14집, 1969.

<Summary>

A Study on the Sociological Determinant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Behavior

*Zin-Gyun Kim**

The purpose of the present article is to deal with (1)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ion-consumption behavior and traditional community, (2) peasants' value-orientation in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a rurals community. For the second part, a survey was conducted in Sukyong-Ri, Sobomyon, Koonwui-Goon, Kyongsangbuk-Do. The sample size was 50 households.

Some of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Traditional Confucianism has made the prusuit of self-interest legitimate only in the preservation of house property. It has been, however, onesidedly a mechanism of saving and lending.

2. Kinship cooperation for saving was only for the pursuit of ancestor worship and social prestige. And it did not aim at the pursuit of economic interest at all. Because of this, no individual shares were recognized. Accordingly, cooperation for saving in kinship organization has been consumption oriented and alienated from economic self-interest. Thus it was not able to create ground motives for the pursuit of economic self-interest and consequently failed to develop economic cooperation for saving-investment.

3. It has been rural community that the traditional saving pattern can only be observed in such ritual events like funeral, marriage, and ancestor worship. In recent days, however, new cooperative patterns for saving through which many living conveniences are purchased are frequently observed. In this case the cooperation is strictly on personal relations.

4. In spite of its strict organization, the cooperation through labor exchange

* The author is full-time lecturer of sociology, College of Commerce,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is also research member of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production process has been based on the principles of the reciprocal help and personal ties. In recent years, however, there has been a new pattern combining the above principle and that of economic self-interest.

5. Peasants seem to acknowledge fully the importance of money value in capitalistic system, the impersonality as a consequence of this, and the economic end as profit-pursuit. They are aware of the situation that the profit pursuit in agriculture can not be achieved.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price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are strictly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An important point is that although peasants have been equipped with strong motivations for the profit-pursuit, the present structure of self-supporting production is limiting this growing profit-making motivation.

6. Peasants have strong positive value orientation in the saving-investment. As the same time, there has been observed a tendency which would reject demonstration effect in consumption pattern. In life, however, the income elasticity of the consumption items is very high especially in such items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ritual elements supported by the traditionally oriented values.